



들꽃편지 666

2024.7.22.대서
<https://cyw.pe.kr>

출산율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960년 6.0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0점대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나egara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난리를 치고 전문가들도 오만 우거지상을 하며 심각한 표정을 연출하네요. 다들 큰일 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지금부터 30-40년 전에는 지금과 반대로 너무 많이 낳으면 지구가 초만원이 될 것이라며 난리 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족계획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하면서 많이 낳는 이유가 남자들 몸에 붙어있는 버섯(같이 생긴 것) 때문이라며 큰 송이버섯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그림을 그려 최고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아이고, 그때는 장가를 안 가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쥬.^^)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낳은 '노동력' 덕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에 비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야 될 공간에 여러 명이 살다 보니 '공간 욕구 불만'이 생겼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인구가 겁나게 늘어나는 인도나 동남아 국가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람의 노동력이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AI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노동력으로 대체되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던 일자리는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사람들만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은 뭘 하고 삽니까? 현재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면 안된단िका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적절한 숫자의 인구가 로봇에게 일 다 시키고 사람들은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충분히 복지를 누리는 쾌적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들을 낳아서 본전치기는 한 최용우 올립니다.

기적

나눌 수 없는 것이
고통이다

기쁨도 나눌 수 없다면
슬픔이 된다

정다운 모습도
함께 나눌 감성이 없다면
쓸쓸한 것

무엇든 나눌 수 있는
감성이 있다면
고통마저 기쁨이 된다

이광하 2024.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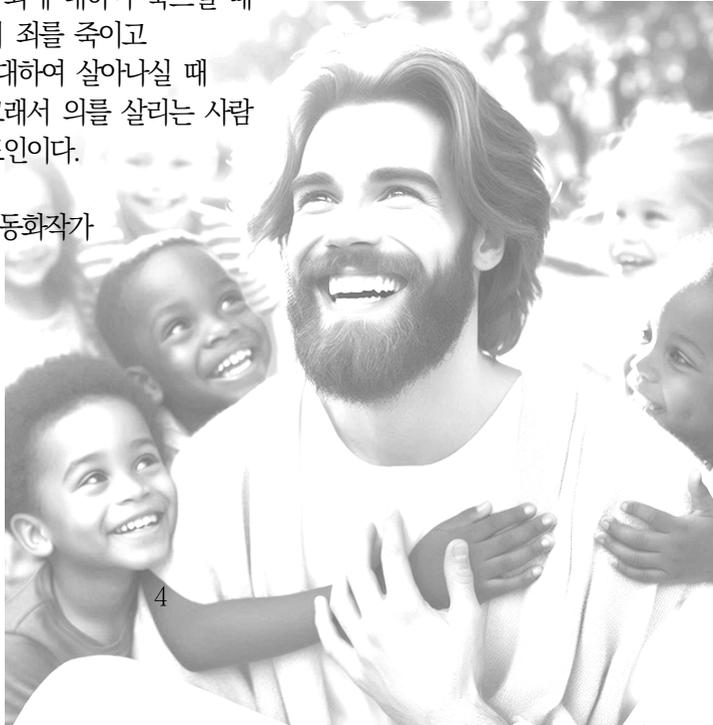
사망에서 영생으로

아무리 포악한 군주라도
시체를 자기 앞에 복종시킬 수는 없다.
죄와 인간의 관계가 그와 같으니,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죄짓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죄가 사람을 죄짓게 할 수 없다면
그 죄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죄에 대하여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드신 분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이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
함께 죽고 그래서 죄를 죽이고
그분이 의(義)에 대하여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의를 살리는 사람
그가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56 세상 소리만

코로나 백신에 대해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지가 마비가 됐데, 주사 맞고 죽은 사람도 많데”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였나 봅니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라가 가난하여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기에 그 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는 남는 백신을 버리지 말고 달라고 구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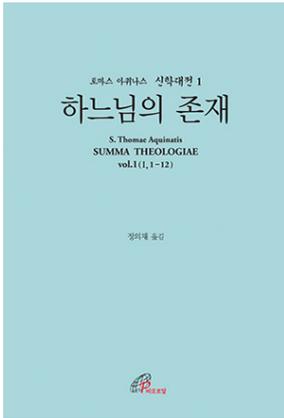
“주님!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 소리만 귀 기울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I권 하나님의 존재 (I)



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1부 제1권 (1-12)
S.T Aquinatis 지음/정의채 옮김
751쪽 69,000원 바오로딸 1985, 2021

1. 거룩한 가르침에 관하여
2. 신문-하나님이 존재하는가
3.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하여
4.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하여
5. 선 일반에 대하여
6. 하나님의 선성에 대하여

1. 거룩한 가르침에 관하여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범위에 대하여

- ① 신학, 철학적 학문 분야들 외에 또 다른 가르침은 필요하다.-인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다른 여러 학문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지구는 둥글다'는 것은 천문학의 도움을, 천문학자는 수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 ② 계시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하며 그것은 학문이다. 학문은 첫째, 지성의 자연적 빛으로 알게 되는 학문이 있고, 둘째, 지성의 자연적 빛을 넘어서는 학문이 있다. 성경은 두 번째 경우의 학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여러 원리를 믿는 것이다.
- ③ 거룩한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해 다루는 단일한 학문이다.
- ④ 거룩한 가르침은 인간을 위한 실천적 학문이 아니고 신적인 것에 관하여 논하기 때문에 사변적 학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 ⑤ 거룩한 가르침은 다른 학문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 거룩한 가르침은 자기 원리들을 다른 학문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는다. 그러므로 거룩한 가르침은 다른 학문들을 하녀로 사용한다.
- ⑥ 거룩한 가르침은 모든 인간적 학문 중에서 최고의 지혜이다.(신4:6) 자기 원리들을 '신적 지식'에서 받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이다.
- ⑦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인식할 수 있다.

- ⑧거룩한 가르침은 논증될 수 없다. 인간 이성의 논증은 신앙에 속하는 것들이며 증명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 ⑨성경은 은유적 상징적 화법을 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이 방법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은유와 상징으로 더욱 신이 더 감추어지기 때문이다.
- ⑩성경은 한 구절 안에 여러 의미를 포함하지 않고, 한 구절은 명확하게 한 가지 의미만 담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혼란도 없다.

2. 신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 ①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재한다는 인식은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 ②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논증될 수 없다. 논증이란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인데 신앙은 나타나지 않은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논증의 대상이 아니다.
- ③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다섯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
 1. **운동변화**이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운동이다. 양이나 열의 증가, 화학물질의 화합, 식물의 발아, 바람, 성좌의 움직임 등등 초자연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2. **능동인(能動因)**이다. -이 세상은 무기물계-식물계-동물계-인간계-영계의 순서로 서열이 존재하며 하등의 능동(원인)으로 고등은 생존(결과)한다. 무기물계를 능동하게 하는 제1원인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없다면 고등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3. **우연과 필연**이다. -우리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자가 한번 사정을 하면 3억개의 정액이 나가는데 그중에 1이라는 우연과 필연은 '생성'이 되고 그 외에 299,999,999는 '소멸'이 된다. 우연과 필연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것, 이런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른다. 즉, 세계 사물의 우연성에서 필연유(必然有)의 이유로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증명이 된다.
 4. **사물계에서 발견되는 단계**이다. -어떤 사물의 경우이든 그 존재와 신성과 모든 완전성의 원인인 어떤 것이 있다. 그 어떤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른다.
 5. **사물들의 통치**다. -자연적 물체들은 항상 같은 성분과 같은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이나 석탄이나 철광석이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성분이 동일하게 생성된다. 모든 자연적 사물을 언제나 똑같이 질서 지어주는 어떤 지성적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른다.

3.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하여

①하나님은 절대로 물체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영(靈)이시다.(요4:24)

1.어떠한 물체도 스스로는 움직여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이게 하는 부동의 제1동자이시다. 제1원인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2.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존재한다는 것은 물체적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동식물들을 능가한다는 의미이다.(창1:26)

3.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걸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며 오직 마음의 움직임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②하나님은 제1능동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본질에 의한 형상(形相)이며, 질료와 형상으로 합성된 분이 아니다.

③하나님과 그 본질 혹은 본성은 같다. 질료와 형상으로 합성된 사물은 본성 혹은 본질과 개체적 실체는 필연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료와 형상으로 합성되지 않은 분이시기에 그 본질과 본성이 다를 수가 없다.

④하나님 안에서 본질과 존재는 같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그 본질은 다 알 수 없다.

⑤하나님은 실체의 유(類)에 속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은 <이 세상엔 10가지 있는 것(유類)이 있다. 실체, 양(量), 질(質), 관계, 능동, 수동, 시간, 어디(장소), 위치, 소속이다.>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다 계신다.

⑥하나님 안에 우유(偶有)가 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에 우유(어떤 것)가 하나님 안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⑦하나님은 물체가 아니시기에 전적으로 단순하지 않으시다.

⑧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합성을 이룬다. 예를 들면 사람(人)은 이성적이고 말(言)은 비이성적이지만 서로 합성이 된다. 하나님도 다양한 다른 것들과 합성을 이룬다.

4.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하여

①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마5:48)

②사물들의 완전성들은 서로 대립한다. 대립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 같이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안에는 사물들의 모든 완전성은 없다.

③피조물이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없다.(시85:8) 비슷한 것이란 비교인데, 단 맛과 흰색을 비슷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유(有)인 피조물과 무(無)인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없다.



5. 선 일반(善一般)에 대하여

- ①선(善)은 실재적으로 유(類)와 구별된다. 어떤 것도 스스로 형성되지 않는다. 선은 유의 형성을 통해 말해진다. 그러므로 선은 사실상 유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②선은 실재하는 것에도, 실재하지 않는 것에도 자기를 연장시킨다. 유는 다만 실재하는 것에만 자기를 연장시키기에 그러므로 선은 개념상 유에 선행(先行)한다.
- ③선은 유에 실체, 양, 질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들을 첨가하여 유를 제한한다. 그러므로 선도 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모든 유가 다 선하지는 않다.
- ④선은 목적인(目的因)의 이유(성격)를 갖지 않고 오히려 다른 원인들의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면 '선은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된다'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은 '형상'이기 때문에 선은 형상인의 이유를 갖는다.
- ⑤선의 이유(理據)는 (존재)양태, 종(種), 그리고 질서에 존재하지 않는다.
- ⑥선이 정선(正善)과 유익선과 쾌락선으로 구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은 유(有)와 주체를 같이하는 열 가지 범주로 구분되나, 그 고유한 이유를 들어 따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하나님의 선성(善性)에 대하여

- ①선하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적합하지 않다. 선은 양태와 종과 질서에 있다. 하나님의 무량(無量)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질서 지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 ②하나님은 최고선(最高善)이 아니다. 최고선이란 선에다 어떤 것을 더 첨가하여 비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이신 선이시기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최고선은 아니다.(마19:17)
- ③본질에 의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고유한 것이 아니다. 선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본질이 선하다고 불리는 것이지 그것이 선에 의해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이시며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 선하신 분이 아니다.
- ④모든 것은 신적 선성으로 선한 것이다. 그 본질에 의해 어떤 것이 유이며 선이라는 것은 절대적 무조건적 진리이다.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독서일기: 최용우

이쁜 아가씨 둘이

눈부시게 이쁜 아가씨 둘이
수다를 떨며 산길을 걷는다
나는 20걸음 정도 떨어져 뒤따르면서
그녀들의 쾌활한 대화를 엿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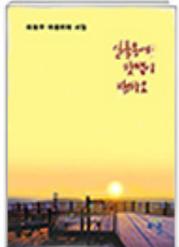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킁킁
끼어들고 싶을 만큼 그녀들의 대화는
명랑하고 재미있고 건강하다.
마치 산새들이 지저귀는 것 같다.

최용우 제9시집<일출봉에 햇별이 쨍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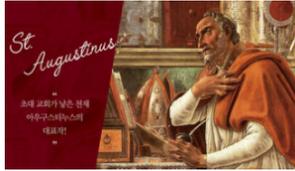
덧글

노정혜 /하하 호호 참 좋습니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운 시향에 머물다가 갑니다

	<p>비학산 일출봉 시인의 산중 연가(山中戀歌)</p> <p>일출봉에 햇별이 쨍하오</p> <p>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600원</p>
---	--

	<p>꽃같은 그대 있어 이 세상이 꽃 같습니다</p> <p>아내에게 바치는 시</p> <p>최용우 지음 216쪽(올컬러) 15000원</p>
---	---

두 나라의 참된 기원-천사들의 순종과 반항



295. 삼위일체에게 성질은 다르지 않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닌 다른 분이시다. 성부도 아니요 성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은 다른 분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처럼 단순하며 변하지 않는 선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세분이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이다. 세 분이시기에 단순함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 선한 본성을 단순하다고 부르는 것은 거기에 성부만 계시기 때문이 아니며, 성자나 성령만 계시기 때문도 아니다. 이름만 삼위일체가 위격(位格)의 존재를 가지지 않은 허울뿐인 존재도 아니다. 그 본성이 단순하다고 하는 이유는 오히려 세 분 저마다 상호관계에 있어서 위격이라 불리는 것을 빼면 세분 모두 같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관계에 따라 말하자면 아버지는 아들이 있으나 그 자신이 아들은 아니며,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나 그 자신이 아버지는 아니다.

296. 하나님의 빛에 반항하는 나쁜 천사들

천사라고 일컫는 영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순간에도 어둠이었던 적이 없다. 만들어진 순간부터 빛이 되었다. 빛을 받아 행복하고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 어졌다. 그러나 어느 천사들은 이 빛에게 등을 돌리는 바람에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없었다.

297. 처음 인간의 행복과 그 뒤 인간의 행복 차이

우리는 이성과 지성을 가진 피조물 가운데 천사만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낙원에 있던 최초의 인간들도 행복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의 행복이 영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생을 즐긴다는 관점에서 보면, 낙원에 살았던 최초의 인간에 비해 우리는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한결 행복하다.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가게 되리라는 것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계속)

설교(說敎)

2



11. 설교자의 원조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라는 형태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2세기 말 클레멘트라는 사람의 글에 “설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니 어쩌면 좋을꼬?”라고 한탄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3-4세기 즈음 떠돌이 선생들이라 불리는 소피스트(sophist)들에게 성경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피스트를 ‘연금술사’라고 번역합니다.

소피스트들은 변론을 펼기 위해 외모에 신경을 쓰고, 감정에 호소하고, 재치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공부를 한 지식인들이었고 유명한 소피스트는 장소를 정해서 같은 청중을 향해 정기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소피스트는 그것이 밥벌이였기 때문에 연설의 댓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가운을 입고 연설을 하기 전에 강단으로 올라가 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회자가 소개를 하면 강단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설 도중 종종 청중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고 연설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영감 있는 연설’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피스트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오? 성경을 소재 삼아서 연설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성경을 미리 공부하고 성경을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딱히 성경 교사가 없었던 기독교는 소피스트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신세계를 경험(?)했을까요? 소피스트들을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기독교 안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성경만 연설하는 전문 소피스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원조는 소피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782)

12. 소피스트(sophist)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한 소피스트(sophist)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스(Hellenic Republic)하면 떠오르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유럽 문명, 문화의 시작입니다. 서양 문화의 근간이 된 헬레니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기독교는 어거스틴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 피타고라스의 수학, 에우클레이데스(유클리드)의 기하학,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등 웬만한 분야는 지금도 고대 그리스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수사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한 이후에도 수사학은 가장 위대한 ‘예술’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는 누군가에게 유창한 연설을 듣고자 하는 지칠줄 모르는 지적 욕구에 따라서 등장한 것이 이야기꾼들인 소피스트들입니다. 그리스어 ‘지혜’(sophos, sofia)에서 유래한 ‘소피스트’는 오늘날 연예인과 같은 스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은 대부분 소피스트들입니다. 그들은 당대에 가장 출중한 인재들이었고 그런 소피스트를 배출한 지역은 도시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기본으로 자리잡은 ‘서론-본론-결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후 소피스트들은 연설을 할 때 항상 ‘3단 구조’로 했습니다. 소피스트들에게 ‘성경’은 엄청나게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오늘날 설교를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로 하는 이유는 소피스트들이 성경을 그렇게 풀었기 때문입니다. (7783)

13. 기독교와 소피스트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가 어떻게 해서 소피스트화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도들과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초기교회 지도자들이 로마의 신앙적 박해를 받으면서 명맥을 유지해오던 교회는 3세기를 전후해서 지체들의 역할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부담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러 다녔던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도 하나 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서서히 등장한 것이 ‘성직자 계급’입니다. 초기 교회의 여러 모임들은 사라

지고 그 자리를 '교회 의식'이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층적 구조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독교'를 구조화 시켜서 살아남게 하려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교회 구성원들이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많은 소피스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초기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는데 터툴리안, 씨프리안, 아르노비우스, 어거스틴등 우리가 '교부(Desert Father)'라고 부르는 수도사들입니다.

돈을 받고 연설을 하는 소피스트들은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소피스트들은 그들의 사무용 의자에 앉아서 '호머(시인)의 시 원문에 주석(exegesis)을 달 듯이, 성경의 신성한 본문을 해석하여 주석을 달기 시작했다.>는 글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이 '연설'을 하기 위해 성경에 '주석'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설교자들도 똑같이 성경에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7784)

14. 소피스트 크리소스톰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는 3세기 소피스트들에 의해 그리스로 마식 '연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은 그것에 '설교 또는 훈계'라는 뜻으로 'Homilies'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그 설교학이 바로 homiletics(설교학)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원래 기독교 본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마의 '연설' 방법이 기독교 안으로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설교는 3-4세기에 살았던 두 명의 위대한 그리스도인 소피스트에 의해 오늘날까지 기독교 안에 두 개의 거대한 강물이 되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존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347-407)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의 별명은 '황금입'이었습니다. 천부적인 말재주를 가졌던 크리소스톰은 4세기 최고의 소피스트로 추앙받던 리바니우스(Libanius)의 제자였습니다. 리바니우스는 죽을 때 "만일 기독교인들이 크리소스톰을 흠뻑가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를 능가하는 대 소피스트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의 설교는 재치가 번득이고 솔직하며 매우 흡인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몰려와 강단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솜씨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설교가 끝나면 박수와 환호 소리가 멈출 줄 몰랐고, 그에게 '설교'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자처하였다고 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설교의 기본 토대를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제 책장에도 '크리소스톰 로마서 설교 집'이 꽂혀 있어요. (7785)

15. 소피스트 어거스틴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의 거대한 두 물줄기 중 다른 한 물줄기를 튼 소피스트는 어거스틴(St. Augustine, 354-430)입니다. 그는 전직 수사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강단연설'을 기독교에 '강단설교'라는 이름으로 유입시킨 장본인입니다.

크리소스톰의 설교 방식은 '그리스식'으로 수사학적인 재능과 시구의 인용이 두드러졌고 청중을 감동시키는데 설교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쾰링거는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모델로 삼아 개혁교회 설교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설교 방식은 '라틴식'으로 그리스 방식보다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설교의 수준을 '보통사람'에 맞추고 더 단순하고 도덕적인 면을 다루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거스틴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또한 가톨릭의 '강론'도 어거스틴의 방식을 따릅니다. 중세 시대에는 유카리스트(예전) 중심의 미사를 드리면서 '설교'가 뒷자리에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이 유카리스트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설교'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한때 교회를 Mundhaus(연설을 듣는 집, 또는 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한때 '설교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순되게 가톨릭이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한때' 주장하다가 말았던 '설교자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주장을 저는 요즘도 가끔 듣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 저는 그냥 '픽' 웃습니다. 그저, 루터와 칼빈도 철회한 주장인디? (7786)

16. 청교도와 설교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는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청교도운동과 18세기 서부 개척운동과 대각성운동의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설교는 대부분 '청교도 설교'와 대각성운동의 결과인 '프런티어(개척) 설교'입니다.

청교도들은 칼빈에게서 설교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조직적으로 강해했는데 그 방법은 교부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르네상스 학자들의 스타일입니다. 르네상스 학자들은 고전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해제하여 '주석'을 달았는데 칼빈이 바로 그런 방식의 전문가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 본문을 나누고, 더 세분하고, 쪼개서 분석하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은 더 세밀하게

쪼개지고 분해되고 아주 밀가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벌레를 분해해서 각 마디마다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벌레를 토막내면 죽어버리지요.

18세기 대각성운동은 초기 감리교회에서 유행했었고 지금도 오순절교회에서 사용되는 설교 방식인데, 성경 본문 한 구절 읽어 놓고 성경과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감정 표출, 소리를 지르는 것, 강단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마지막에 슬그머니 성경 본문과 역지로 맞추면서 설교인 척 끝내는....

원래 기독교에는 '설교'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3세기 그리스로마식 수사학을 받아들여 그것으로 성경을 감싸게 되었고 4세기 탁월한 연설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5세기부터 뒤로 물러나 있던 '설교'가 종교개혁 후 다시 등장하여 지난 500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견고하게 예배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아니었죠. (7787)

17. 목적을 잃어버림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첫째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설교'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설교'는 회중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천 차단해 버립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교자는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설교하지만, 그것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수사학에 불과할 뿐,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손을 잡아 만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회중은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손을 들고 "그러면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설교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회중을 공연 구경하는 병어리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부들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은 '성경 한 절'을 붙잡고 길고 긴 시간 동안 정말 지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 나는 정말 성경을 깊게 봤다. 심오하지?" 하면서 스스로 지적 자만에 빠져서 우쭐했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렇게 심오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 '실체'와 단절을 시킨 것이죠.

'설교'라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 모임은 언제나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모임이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제각각 은사대로 제 기능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788)

18. 이상한 설교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둘째는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일방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회중의 호기심을 약화시키고 회중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강단에서 설교자는 자기도 이해못한 설교를 하고, 자기도 실천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자기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자기도 설교 마치는 순간 잊어버리는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설교에 기대감이 없고 설교 시간은 엉덩이를 꼬집으며 '견뎌내야 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교인들은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예배당 의자에 소금기둥처럼 앉아서 패턴이 비슷한 한 사람의 설교를 매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각자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설교'는 교인들이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절름 발이를 만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 막4:24-25, 히10:24-26, 엡4:11-14, 고전12장-14장을 읽어보면 그들은 '설교'라는 것을 듣고 각 지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교회의 모임에서 교인들이 자유롭게 입을 열도록 서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고유한 은사를 받았는데, '설교'도 그 은사 중의 한 가지일 뿐, 다른 은사보다 더 특별하거나 더 중요한 은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설교는 없었습니다. (7789)

19. 개지켜버린 영적 연합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셋째는 교인들이 과도하게 또는 병적으로 설교자를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의존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설교'라는 무기로 교인들이 자신을 의존하도록(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순간 그는 사이비 교주로 등극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목양(牧羊) 한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기도원 집회(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떤 강사님이 "양이 하는 일은 오로지 '매~~~' 하고 울고 풀을 뜯어 먹는 일만 하게 만들어야 목회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양을 치는 목자이고, 교인들은 양이라는 상하관계가 되게 하

는 결정적인 도구가 '설교'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에 반하여 교인들은 설교에 대해 토를 달았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된다거나 교회를 떠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의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길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상호간에 영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한 사람 외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입을 꼭 다물고 의지만 따뜻하게 데워주는 순한 양으로 만드는 오늘날의 '설교'라는 형식은 신약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보입니다. 설교자도 영적 자양분을 지체들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하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7790)

20. 온전케 하지 못함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넷째는 설교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막일꾼으로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에베소서4:12)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미리 정하시고(예정),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영화) 하셨느니라"(롬8:30) '온전'이 바로 '영화(glorification)'입니다.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구원의 서정 맨 마지막에 둡니다. 더 이상의 상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설교'로 영화를 설명은 하지만 영화되는 단계까지는 설교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로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목회자 잘 섬기는(?)' 사람 이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에 <평신도를 깨운다>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압구정동의 아무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기껏 평신도를 깨운다는 게 교회에 봉사나 열심히 하고 목회자나 잘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하신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고 배우고 가르쳤던 초대교회 방식'은 오랫동안 그 교회를 내버려 두었어는데도 교회가 목회자 없이도 제 기능을 잘 발휘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로 교회를 독점하고 있는 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란 공허한 말장난에 그칠 뿐입니다. (7791) ©최용우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보리수 (사진:최용우)

보리수 열매

처가에 갔더니 보리수 열매가 빨갱게 잘 익었다고 남자들은 빨리 나가서 보리수를 따 오라며 바구니를 손에 쥐어 준다. 아잉~ 싫은데... 그런데 보리수를 어떻게 따지? 길게 붙은 꼭지를 붙여야 하나 떼내야 하나? 처남에게 물어보니 빨간 알만 바구니에 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한다. 어차피 먹을 때 꼭지는 따고 먹으니...

어쩐지 꼭지까지 붙여서 따야 할 것 같았지만, 그냥 빨간 알만 한 바구니 따가지고 갔다. 그런데 여자들이 '왜 꼭지까지 다 따버렸냐고' 머라 한다. 음.... 그런데 처남이 따 온 보리수에 간혹 꼭지가 붙은 것을 보고는 '왜 꼭지는 안 뺐냐고' 한다. 뭐지?

꼭지를 붙여오면 붙여왔다고, 떼어내면 떼어냈다고 혼나고. 어떻게 해도 이미 여자들은 남자들을 혼내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거야.

다음에 또 보리수를 따 오라고 하면 죽은 척 해야지.

아내의 핸드폰

아내의 핸드폰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서 뒷 커버가 조개처럼 살그머니 입을 벌렸다. 아내가 깜짝 놀라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폭탄처럼 팡! 터지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한다. 배터리는 2년 정도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관리만 잘하면 5년 정도는 써도 된다.



그리고 보니 아내가 관리를 잘해서 5년 정도 썼으니 바꿀 때 되었다. 아내에게 “폰이 너무 느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좋은 폰을 사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검색해 보니 여자들이 ‘조개 폰’을 많이 쓴다고 하여 아내와 함께 이마트 가서 ‘갤럭시 Z플립5’를 2년 약정으로 샀다. 핸드폰은 현금 주고 기계 사서 알뜰폰 요금제 가입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조삼모사(朝三暮四)처럼 어차피 그제 그저다. 그래서 따지는 것도 귀찮고, 그냥 순순히 노예가 되어 주었다.

돈 세팅.. 문제는

“나는 기계치여서 암것도 모르니까 자기가 다 세팅해 줘야 돼.”

아내가 새로 산 핸드폰을 이전 폰과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한다. 폰을 살 때 백업을 해줘서 대부분 새 폰으로 옮겨졌는데, 문제는 어플들이 모두 ‘로그아웃’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어플마다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아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어디 한 군데다 다 적어 놓으라고 했고만...” 아내가 아이디를 적어놓은 노트를 여기저기 뒤져서 찢끔찢끔 찾아온다. “나는 이런 게 약해. 잘 안 돼...” 하루 종일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로 하나씩 하나씩 살리며 세팅을 하다 보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다. 안 쓰던 뇌속 뉴런(neuron)을 갑자기 써서 그런지 아이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아내가 수고했다며 콩국수 사줬다.^^

임플란트 시술

드디어 오늘 광주 즐거운치과에 가서 내 입속마을 1층 언덕에 기둥을 내게나 박고 왔다. 원래 한번에 2개씩 밖에 안해주는 데 나는 집이 멀어서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4개를 심어 주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했다고 하기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갔다가,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아파서 울었다. 영영 “아프면 말하세요...” 어른이 으쓱케 아프면 그냥 참아야지 아프다고 해. 그냥 이를 앙~ 물고 참... 으려고 할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세요. 더 더 크게..”하는 바람에 입을 벌리고 참았다. 영영

4개 심는데 무려 2시간이나 걸리는 대 공사였다. 무슨 임플란트 값이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비싼 것이 아니었다. 충분히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 7월에 실밥을 뽑고 3개월 후에 치아 대가리를 엮는다고 한다. 영영 ㅠ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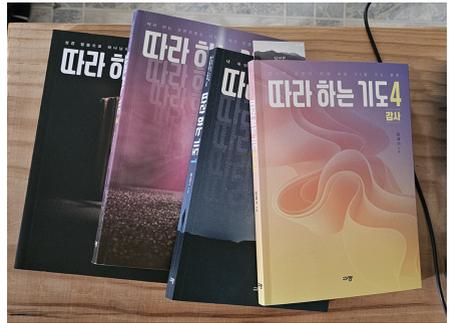
사진:인터넷 무료사진 검색

따라하는 기도

아내가 유튜브에서 '따라 하는 기도'를 보고 틈나는 대로 따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따라 하는 기도>가 책으로도 나왔다며 다 사달라고 한다. 그래서 4권을 다 사주었다.

'따라 하는 기도'는 기독교 역사에서 거의 19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구송기도(口誦祈禱)'이다. 가톨릭은 아직도 '기도'라고 할 때 그것은 '구송기도'이다. 개신교인들처럼 자유롭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신교회처럼 '기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나도 오랫동안 집에서 '구송기도'를 해오고 있다. 각 상황에 맞는 '기도문'이 있어서 그것을 소리 내어 낭독을 한다. 기도를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황설수 설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기도문을 소리 내어 읽으면 그 소리의 파장과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실체가 된다.



미리낸 돈

전국에 인터넷 통신망을 깔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한번 깔아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돈을 좀 미리 빌려 주면 그 돈으로 통신망을 깔 다음 이익이 나면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 요금에는 원가보다 열배가 넘는 높은 요금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약속대로 미리 더 받은 돈을 50만원씩 돌려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가입을 하면 50만원씩 현금을 준다. 그거 공짜 돈 아니다. 그동안 내가 인터넷 통신 요금을 미리 더 내준 것을 되돌려받는 것이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절대로 먼저 돌려주지는 않는다. “내 돈 50만원 주세요”라고 내가 내 돈 찾아 먹어야 한다. 만약 50만원 이하를 준다면 나머지 돈은 풍돈 생겼다며 자기들끼리 술 사 먹는다.



마늘 짱아치

해마다 장모님이 마늘 짱아치를 해서 한 병씩 주면 잘 먹었는데 올해는 밭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아내가 ‘마늘 짱아치’를 한다며 처가에서 마늘을 잔뜩 가지고 오고, 시장에서 사 오고, 마치 사람이 되고 싶은 곰처럼 마늘을 잔뜩 모아서 저녁마다 까고 앉아 있다. 현관이며 집안이 마늘 냄새로 온통 난리가 났다.

그렇게 한 병씩 만들어 동굴(창고)에 썩이는 중이다. 1년을 묵히면 맛있는 마늘 짱아치가 된다고 한다. 평소에는 관심조차도 없었던 마늘 짱아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밥상에 올라왔구나 생각 하니 해마다 짱아치를 해주신 장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든다.

그런데 나도 마늘을 한번 40일 동안 까먹어 볼까? 그러면 나도 마누라랑 같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랑스런 잎사귀

언제부터인가 내 책방 창문 밖 담장 너머에서 나에게 사랑의 하트를 사랑사랑 날려주는 놈...놈이 아니고, 녀이 있다.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 발뒤꿈치를 들고 “용우씨~ 사랑해요.”하고 나에게 사랑의 링크를 시도 때도 없이 발사 한다.

나는 그 청혼에 못 이겨 카메라를 들고 살그머니 밖으로 나가 담장너머 학산빌라로 간다. 나를 부르는 그 사랑의 하트는 ‘마’이다. 한자로는 蓼(서)라고 쓰며, 마의 열매는 꼭 ‘감자’처럼 생겼다.

‘100m 달리기 세계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도 ‘마’를 먹고 그렇게 잘 뛰었다고 하니 뭘지는 모르지만, 마는 남자들에게 막 힘이 솟게 하는 신비로운 녀인가 보다. 그런데 나는 그런 스테미너 보다는 완전 오리지날 하트(♥)모양의 잎사귀가 참 신기하고... 볼수록 사랑스럽다.



치자꽃

길을 걷는데 치자꽃 향기가 코에 훅 들어온다. 꽃향기중 가장 강렬한 향기는 치자향이지 싶다. 어느 ‘부동산사무소’앞에 놓인 치자꽃 화분에서 나는 향기이다. 아마도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화분 같은데 웅기종기 여러 가지 화분이 주변 길가에 가득하다.

가게 앞길은 가게의 주인을 닮는다. 꽃을 좋아하는 주인은 가게 앞도 꽃길로 만드지만, 어떤 주인은 차로 길을 딱 막아놓기도 하고, 어떤 주인은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지 풍초가 수북하기도 하다. 가게 앞길은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보여준다.

가게 앞이나 대문 앞은 그 집이나 가게의 첫인상과 같은 곳이다. 길을 걷다가 꽃 화분을 놓아둔 가게는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된다. 꽃이 가득한 교회도 한번 더 보게 된다. 꽃이 있으면 일단 한 5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것 같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658회 함박산(85m 세종)

세종시 연서면 군부대 옆에 바가지를 얹어놓은 모양의 산이 있는데 함박산이다. 함박산은 모양이 동그란 함박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함박산 정상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커다란 콘크리트 기둥을 철거한 자국이 있었고 무덤 1기가 있었다. 정상에서 보니 내려가는 길이 있었다. 그 길을 따라 내려갔더니 늘평안요양원 뒤쪽 산길 중간쯤과 연결되어 있었다. (2024.6.6.)



▲제659회 계룡산(관음봉766m 공주)

버스를 타고 동화사 주차장에 10시 50분에 도착했다. 10시 정도에는 등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조금 늦게 11시에 천장골에서 출발했다. 40분만에 큰배재 도착 -12시 남매탑 -12:22 삼불봉 -1:14 관음봉 도착하여 빵으로 점심을 먹고 하산하여 동화사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니 3:15분이다. 3:30분 버스 타고 집에 오니 5시이다. 등산 4시간 포함 오늘 모두 2만2천보 약 20km를 걸었다.



너무 더워서 광대뼈가 앵두처럼 빨갛게 익어 벗겨졌다. 정상석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니 선크림 바른 얼굴이 하얗게 빛나는 것이 영... 까만 옷 입고 갓쓴 사람 같네잉... (2024.6.12.)

▲제660회 비학산298 (일출봉252m) 2024.6.19

▲제661회 갑하산(468.7m 대전) 2024.6.28.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대서(大暑)-큰 더위

지리한 장마가 오래도록 지속되니 지치기도 하고, 무엇보다 습한 기운이 힘들게 합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고 풍수가 좋은 가까운 산천을 찾아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피서가 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휴가철에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는 '서비스직' 직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라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군요. 어쨌든 휴가가 자연을 받아들이고 동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②표지사진 이야기

뒤든 키위 보고 싶어 했던 아내가 화분에 심은 방울토마토에 알록달록 열매가 맺혔습니다. 카메라를 땅바닥에 대고 위를 향해서 토마토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봅니다.

애초에 방울토마토 모종을 화분에 심을 때 열매를 따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방울이 자라는 것을 보고 사진도 찍고 초록이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내가 “지시대 세워라, 해 넘어가면 물 줘라, 무당벌레 잡아라...” 시시때때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병아리 눈물만큼 짝끔 스트레스이지만 방울토마토를 키우면서 얻는 즐거움이 1억배는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일상의 기적 (시12) /컬러210쪽 15000원 -2024.7.30. 출간 예정

83.오두막 일기 (일기15)/컬러396쪽 24000원 -2024.6.28 출간!

82.성동-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햇별23)/318쪽 14000원 -2024.5.30 출간!

81.마태-예수어록 /692쪽 28000원 -2024.3.19.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78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4.6월 재정결산

2024년 6월(1-30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1004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승현 박신혜 양은희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수환 정효숙 조희동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새벽기도 선한열매교회 안디옥교회 함안중앙교회
총 28분이 1,0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인터넷신문 2024.7.20.일까지 7861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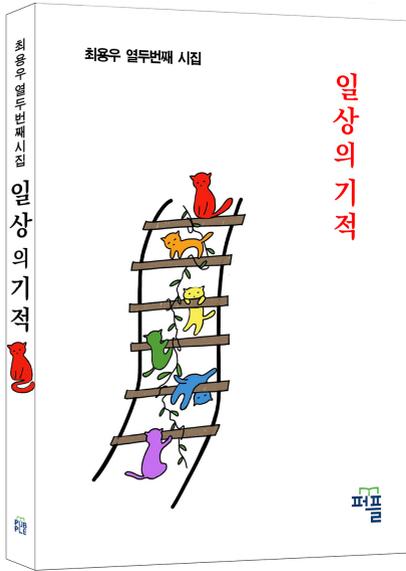
③도서출판 -그동안 84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새로 나온 책

<최용우 시집 시리즈>

1. 숲속의 아침 /138쪽 7200원
2. 설레임 /146쪽 6700원
3. 어부동의 아침 /150쪽 7600원
4. 내영혼이 주를찬양 /398쪽 16300원
5. 찬양하라 내영혼아 /398쪽 14300원
6. 천번을 부른주님 내입에는 찬양만 /1044쪽 34600원
7. 우리 커피한잔 할까요?/168쪽 11300
8. 일상의 행복 /210쪽 13600컬러
9. 일출봉에 햇별이 쨍하오/210쪽 13600
10. 일상의 기쁨 /210쪽 13400컬러
11. 아내에게 바치는 시 /220쪽 15,000
12. 일상의 기적 /210쪽 15000원(올컬러)

가까운 지인이 카톡에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손녀의 동영상을 올려놓고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며 빠진 이를 드러내놓고 웃는 것이었다. 손녀딸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막 자랑하고 싶은데 “손녀 자랑 한번에 1천 원씩 내고 하는 거 알지?” 그 가혹한 규칙(?) 때문에 자랑은 못 하고 그냥 입이 근질근질 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음...나도 나중에 손자 손녀를 보면 저렇까? 그때 맘껏 자랑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두어야겠다.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있다. 아기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기적’이다.

작가 박완서는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알고 보니 ‘기적’이었다.>고 한다.

일상 가운데 살포시 숨어있는 작은 기적들을 찾아보았다.

최용우 210쪽(올컬러) 15,000원 퍼플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어부동의 아침

그림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조용하던 작은 산골마을 어부동에 살면서 호수가를 거닐며 쓴 맑고 밝고 환하고 시원한 시. 기분이 밝아지고 세상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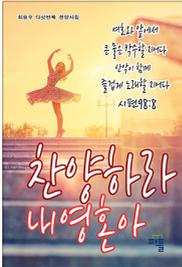
7,600원 150쪽 퍼플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실제적인 기도들. 그냥 따라 읽다보면 어느새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14,300원 398쪽 퍼플



찬양하라 내영혼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나니 오늘도 입으로 말로 글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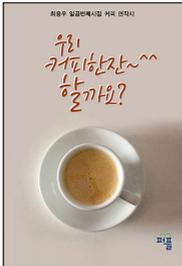
14,300원 398쪽 퍼플



천년을 부르주님 내입에는 찬양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시를 일천편 써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34,600원 1044쪽 퍼플



우리 커피한잔 할까요?

한 잔의 커피에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한 가득 담겨있네. 한 잔의 커피에는 쓴맛과 단맛이 나를 사로잡네. 한 잔의 커피에 여유와 자유가 향기로 피어나네.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11,300원 168쪽(컬러) 퍼플



일상의 행복

오늘 나는 참 잘 살았다. 아무 일 없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찾아보는 즐거움과 행복을 단순하게 보여 주는 담백한 시집입니다.

13,600원 210쪽(컬러)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점)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66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